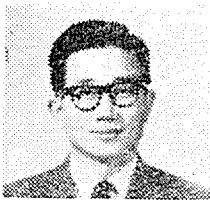


임 천 식

법의학적인 面에서 본 자살



성서에 “은천하를 얻고도 자기목숨을 잃으면 무엇하리오”라는 생명의 존엄성을 말한 구절이 있다.

요즘 신문기사에 본처가 남편을 죽이고 자살한양 위장한것이 수사당국에 의해 밝혀지는것을 본다.

자살의 통속적인 분석을 요약하면 「자살은 견디기 어려운 인생의 상황에서 도피하기 위한것으로 일반적으로 병(不治) 수치, 가난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신문기사, 생명보험의 보고서 사망진단서등의 내용이 위와 같은 내용들이다.

자기자신에 위해를 가해 자살하려다가 미수에 이르러 의사에게 다시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세상에는 갑작스러운 충동에 마음이 변했다고 가정할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어찌서 그 행동이 그 마음을 변하게 했는가를 해명할수 없다. 이런경우 보통 고통은 그다지 심하지 않으면 생명이 있는한 희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으나 그 인간내면에 현실에 대처할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음으로 실제로 자기를 죽여보려는 생각보다 순간을 잊어보려는 단순한 충동이 지배하는 것이다 일본의 어떤 문인은 결혼후 몇년 안되어 자살하면서 그 “유서”에 이순간 최상의 행복감을 느끼고 이 순간을 영속시키기 위해 나는 죽는것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우리들 생활주변에서도 특하면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그 말의 뜻은 그 사람의 그때의 환경을 설명하는것이기도 하다.

기독교에서는(종교) 두가지 형식의 자살을 묵시적으로 인정한다고 본다. 즉 순교와 종교 그자체를 위한 고행자의 죽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자살은 죄악으로 단정하고 있다. 초기와 중세기의 수도사의 금욕생활에서 여명을 단축한것을 찾아 볼수 있다. 아시아의 성자 프렌시스(Francis)는 임종에 즈음하여 통찰이 번쩍 했을때 자기의 육체를 고난에 복종시켰음을 느끼면서 자신의 육체에 대해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갈파했다고 한다. 어느날밤 그가 기도를 드리고 있자니까 하늘에서 「프랜시스여 세상에서 뉘우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인은 없다. 그러나 난행(苦行)을 거듭하여 자신을 죽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세계에서는 조금도 자비를 받지 못할거다」라는 소리로 들었다고 한다.

고행자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스스로 자신을 괴롭혀 결국은 자신을 죽이게 됨은 명백하다. 그러나 순교자는 그가 어떤 이상을 추구하고 있을때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받거나 계획적인 처형을 받음으로 타의에 의해 죽는 것이다. 즉 과학자가 연구를 위해 일신을 바쳐 죽음에 이르거나 애국자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교회의 성직자와 의사가 사회봉사를 위해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자기몸을 희생하더라도 설혹 죽음을

을 각오했다 하더라도 자살로는 생각할수 없다. 그들의 건설적정신이 사회적 또는 역사적으로 증명될수 있기 때문이다.

남을 죽게하고 자신스스로가 죽어 버린다는것은 생의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자기중심으로 생각해 볼때 인륜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얼마든지 할수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잘못생각하는 유물론이기도 하다.

얼마전에 어느지방에서 자기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4남매중 세자녀를 물에다 빠져죽게 한 여인이 있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육체적인 자살과 그주변을 고찰해 보았다. 성서에 의하면 적은사람(小者) 하나라도 실족(낙심)케 하는자는 연자매들을 목에다 걸고 깊은 물에 빠져 죽는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한바 있는데 그 뜻인즉 우리가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사람을 괴롭혀서 정신적으로 견딜수 없어 생을 저주하며 포기케 한다면 죽는 그 사람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인간생활에서 나와 너와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돌보아 주는 것은 인덕을 쌓는 인륜의 대도라 할것이다. 그와 같은 인생철학을 가지고 살때 자살이나 타살이거나 인간의 죽음과 관

밤에 본 코스모스

김 기 흥

눈을 감지 못한채
 이마에 얹힌 별빛을 쓸어내며
 이슬을 맞고 있다.
 어떤 기다림의 환상으로 메운
 설레는 심장도 아니건만
 가슴엔 하얀 파도처럼
 무언가 물려올것 같아
 여윈 고갯 숙이지 않고
 별발을 바라본다.
 얼굴을 적시는 찬 이슬
 심장까지 적셔내려
 한번쯤 몸살 할때도 되었지.
 어느 착한 가시내의 가슴처럼
 탈 없는 고통으로
 강물 위에
 뜨건 침묵을 띄운다.

무수한 뿌리를 가을 허공에 내리
고

맨 먼저 스쳐오는 가을의 바톤을
받아

허리를 굽혀 산등을 오른다.

가을은 너무나도 영성한 먹이를
놓고 슬퍼하고

난 영성한 머리새로 흐르는 빛을
놓고 슬퍼한다.

심장을 뱉어낸 거룩한 모발이
떠나던 날

나의 담은 무너져내리고

중심 잃은 빈 몸은

잃어버린 길가에서

심한 매를 맞아야 했다.

메밀꽃을 바라보며 생을 돌아다
보고

소나무를 바라보며 울먹이는 가슴
회망찬 분노로

더 굳게 모군을 다진다.

(전남 승주군 주담면 구산리 금곡386)

계된 기사를 볼때 무관심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구의 밀도가 심하
 면 심할수록 너와 나와의 관계, 좀
 더 나아가 죽음의 문제를 무관심하
 게 보려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것은 육체위 병만을 다루

(治療하는)는 종래의 인식에서 새
 로운 정신계의 역할을 담당하는 의
 사로서 또는 건강을 담당한자의 사
 명을 새롭게 다짐해 주는것도 바람
 직한 일이라 하겠다.

<필자=관악구 벨엘유치원 이사장>